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 처우 개선·복지 서비스 질 높인다

정액급식비 전년보다 1만원 올려
시설장 관리 수당도 2만원 ↑
안전관리인도 승급 가능해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오른다.

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 관리 업무의 책임성, 직무 전문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메트로 DB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왔다.

2017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총 5종의 유급 휴가 제도도 마련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 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녀수당을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 결과, 64.3%(응답자 6,307명)가 처우개선 정책을 '실질적인 처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복리후생제도·근무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

서울시교육청·학비연대회의 참여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가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인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서울시교육청 공식 기구 출범을 환영한다"며 "이번 출범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2023년 7월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약 2년 5개 월간 지연돼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구성안이 최종 협의됐다. 지난해 6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 이후 협의체 관련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첫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 여부의 필요성 ▲돌봄전담사의 직무분석 조사 항목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및 업무 환경 등 처우 개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서울시교육청 공식 기구 출범을 환영한다"며 "이번 출범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2023년 7월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약 2년 5개 월간 지연돼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구성안이 최종 협의됐다. 지난해 6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 이후 협의체 관련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첫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 여부의 필요성 ▲돌봄전담사

의 직무분석 조사 항목 ▲돌봄전담사

의 근무 여건 및 업무 환경 등 처우 개

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

선 등을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동계 직무연수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21~23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서울교육청 소속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 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혁신미래학교 교육과정 공동 설계·수업·평가 혁신 과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연수 과정은 혁신미래학교의 숙의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설계를 이론 학습과 실습으로 연계해 기획했다.

/이현진 기자

▲21시간 밤샘 조사 마친 강선우 "남은 수사 성실하게 임할 것"
▲신규 원전 필요성 물어보니…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법" 만으로 특고 못 지켜…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부모 책임 0%…"피해회복 더 멀어져"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 '돈세탁'…7명 구속기소
▲불륜녀, 母와 연프 출연 충격…'합숙맞선' 통편집

'AI·디지털 전환'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표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이끈 전문대학들의 사례 발표회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

(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해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 15건 ▲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 혁신, 산학·지역협력 혁신 등 혁신분야별 우수사례 15건을 발표하고, AI 시대 고등직업교육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AI 활용 콘텐츠 공모전'과 '현장 과제 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등에서 수상한 학생 12팀이 직접 성과를 발표하며 학습자 관점의 혁신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일대, 계명문화대, 한양여자대 등이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를, 명지전문대, 대구과학대, 경민대 등은 혁신 분야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이 AI 시대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 운동존을 활용하는 모습.

/서울시

도봉구에 '어르신 디지털 복합공간' 개관

운동·여가 등 엣은 생활형 공간

하나로 엣은 생활형 디지털 공간으로 운영된다.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이 핵심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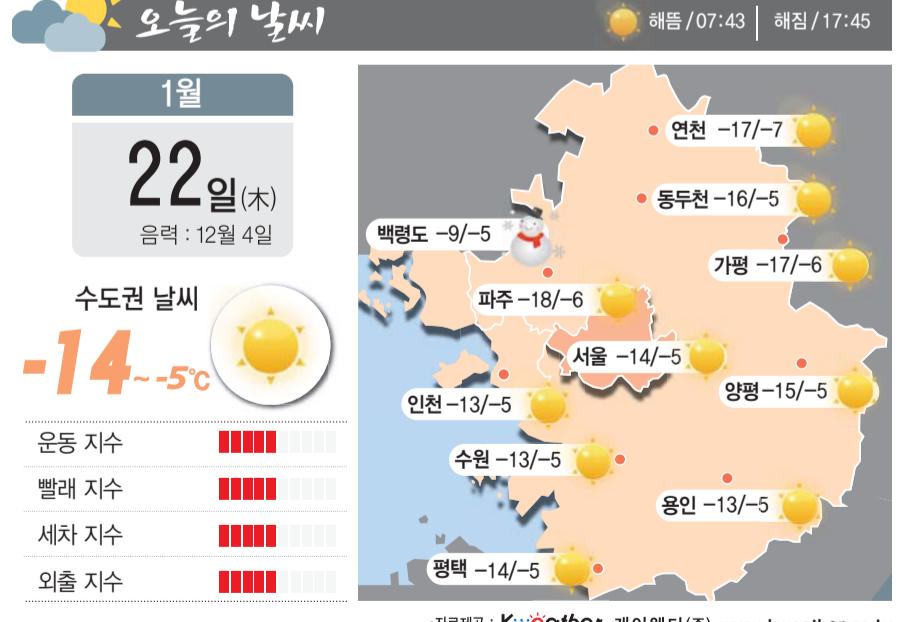
디지털 운동존에는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 현실(AR) 체육 시스템, 스마트 근력 운동기, 꿈의 자전거 등 디지털 운동 기기를 설치했다.

인공 지능 로봇 바둑, 해피테이블, 무인 안내기 체험 등을 통해 쉬면서 디지털을 접한다.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월은 정책 정보 전달을 넘어 영화 상영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생활권 디지털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3년 말 은평·영등포 센터 개관 후 누적 16만 5000여명이 이용했다. 이용 만족도 96.3%, 재방문율 80%를 기록했다. 다음 달 동대문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연내 총 6개 권역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메트로 한줄뉴스



▲21시간 밤샘 조사 마친 강선우 "남은 수사 성실히 하게 임할 것"
▲신규 원전 필요성 물어보니…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법" 만으로 특고 못 지켜…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부모 책임 0%…"피해회복 더 멀어져"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